

교회목표

1. 찬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11:40)

순례자

발행인: 이종운
편집인: 나희주
편집주간: 원필현
발행처: 서울 장로교회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517-7651~5
FAX: 512-1225

93년도 교회 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디어 홍해는 갈라졌다

—오늘 찬양예배시 승전 감사예배—

7월 첫주에 성찬예식

오는 7월 4일(주일)을 우리교회는 금년도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무교절이 지난후 50일만에 맞는 절기로서 구약성경에서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간을 계속하여 칠칠절을 지키는 것으로 이날을 성회로 공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레 23:21).

이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다. 또한 출애굽을 시작한지 50일째 되는 날,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날로도 알려졌다.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강림하시어 교회가 출발한 날로 예배와 전도 그리고 구제의 날로 지키기도 했다.

우리 교회는 금년 맥추절에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예식과 교회학교 학생들의 준비된 순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새벽을 가르는 '93 홍해작전이 6월 6일 새벽부터 오늘까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하에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7대 기도제목을 걸어놓고 하나님앞에 새벽잠을 깨우면서 원근각처에서 달려온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이 찬송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도로 홍해를 가르는 모습은 장하기도 하고 거룩하게까지 보였다.

오늘 새벽 '93 홍해작전에서 승리한 성도들은 떡잔치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서로 나누었다.

승전감사 예배는 오늘 저녁 5시 찬양예배시에 드리게 된다.



6월

학습·세례식 예정

우리 교회는 오는 6월 23일(수) I, II부 예배시 학습·세례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해당자들은 21일(월)과 22일(화)에 있게 되는 학습·세례를 위한 교육과 신앙문답을 받고 성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성례식에 필요한 서류는 새가족부에 제출하면 된다.

불기둥 모임

지난 6월 18일(금) 우리교회는 홍해작전 불기둥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였다. 교구를 지도하시는 교역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온 교회 성도들이 철야기도회를 통해 '93 홍해작전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며 이미 받은줄로 믿고 뜨거운 감사 기도회를 가졌다.



목회자 동정

이종운 목사는 6월 21일(월) 한국 선명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한편 우리 교회 성도들이 홍해작전 기간동안 금식한 것을 바친 헌금은 이날 아프리카 난민을 위한 구호기금으로 선명회에 전달케 된다.

우리 교회는 설립 당시 몇분의 성도들이 바친 헌금으로 현재의 예배당 건물을 임대한바 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많은 사명을 받은 교회로서 이번 홍해작전을 통해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전을 지을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다. 당회는 지난 6월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 오는 7월 첫주일(4일)에 교회설립후 처음으로 건축헌금을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7월 첫주일 건축헌금 드리다—

드리기로 작정하고 이를 공포했다.

헌금 목표액도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진바는 없으나 성도들은 과부의 두 렵돈처럼 목숨을 바치는 심정으로 헌금기로 했다. 우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오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강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21:1-11)

부활의 주

이종윤 목사

2절에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일곱사람이 함께 있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다른 두 제자 안드레와 빌립(요1:44이하)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생명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할 것이다’(요10:27-29) 하신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이루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아버지가 맡겨 주셨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1. 예수님의 간섭

인간의 육신적인 에너지와 지혜, 지식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성급한 사람인 것을 알게됩니다. 그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21:3)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말씀대로 했을 때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을 연결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1) 심판주가 된다.

물고기를 잡아서 고기로 하여금 물을 떠나게 하는 것이 어부가 하는 일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은 살린다는 말이 아니라 죽인다는 말입니다.

(2) 전도자가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에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불신자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 없이는 아무 것도 얻지를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축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름답게 성을 쌓은 것이 자랑스러울지 모르나 주님 없이 행한 일은 다 헛수고입니다.

2. 사랑의 간섭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까맣게 잊어버린채 그들은 낙심하고 피곤했을 것이고 새벽이 되었으니 시작했을 것입니다. 4절에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줄 알지 못하는지라’고 합니다.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혹은 날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능력과 힘으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구

도자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구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계시해 주신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찾아오시어서 사랑의 간섭을 하시는 모습을 세 단계로 찾아야 됩니다.

(1) 질문 하십니다.

‘애들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5절)

예수님의 질문은 사랑의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우리 힘으로는 실패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 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없나이다’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주님이 물으신 것은 그들의 배고픔과 피로와 실패를 인정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의 삶에 직접 개입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랑의 개입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고 우리의 길을 잠깐 멈추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 하시는 것입니다.

(2) 명령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6절),

여기서는 오른쪽 왼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의해서 지시된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복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자기가 주도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스스로 더

많이 알고,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항거하는 무서운 죄악이 됩니다. 이와같은 불순종을 회개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3) 복을 주십니다.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6절).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온전한 십일조를 바치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않으니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은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열어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 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에는 그물이 찢어졌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한번 거둬 들인 것은 새나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은 처음엔 주님인줄 알아 보지 못하다가 주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을 하고 축복을 받은 후에 비로소 예수신 줄로 알아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아직도 주님을 알아 보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속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은총이고 최고의 은혜인데 오늘 제자들이 바닷가에 계신 주님을 만나듯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과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승전을 나눕니다

이영기 장로

홍해작전을 이끈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 모두의 승전을 약속하는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의 불신앙에 대한 통회의 회개를 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였으며,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두고 기도하게 했다.

이번 홍해작전은 나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었다고 자부하겠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서울교회는 이제 홍해를 건넜다.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더욱 확실히 보면서 서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을 감사하며, 이 일들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또 새 성전도 주실 것을 확신하며 다같이 승전가를 소리높여 부르자.

홍해는 갈라졌다

장낙희 집사(3교구)

우리는 홍해작전 첫날부터 출애굽기로 목사님의 메세지를 듣고 주제와 표어 그리고 행동강령을 외치며 7대 기도제목을 들어 기도하였다.

그런던중 이 기도제목들은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 과연 무엇이 나의 홍해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때 부족하나마 동참해 봉사할 수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는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홍해는 갈라졌다. 우리 믿음의 행실은 너무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자신의 홍해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건축을 맡기시고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 넉넉하게 남게 하셨듯이 홍해를 건넌 우리 서울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고 서울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할 뿐이다.

'93 홍해작전을 통하여

노창훈(대학부)

이번 홍해작전은 입시 공부를 핑계로 첫날과 마지막 날에만 참여했던 작년까지의 그것과는 달리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우 많은것을 알게해주셨다. 작년 그러니까 고3까지는 개인, 민족과 교회의 홍해가 갈라져 남이 건너면 나도 건넌다는 생각으로 별의미없이 새벽기도회에 나갔었다.

그러나 올해는 앞에 있는 홍해가 무엇이며, 왜 갈라져야 하고, 왜 우리는 건너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셨고, 그랬기에 그 홍해를 가르기 위해 더욱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교회와 민족을 이끌어갈 피끓는 젊은이인 나에게 갈라져야 할 구체적인 홍해를 보여주시고 홍해를 내 힘으로가 아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의 권능'으로 갈라주실 것을 이번 홍해작전을 통해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



홍해작전 기도에서 받은 믿음

원복순 집사(5교구)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하시니라'(욥5:10-19).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그 피뎀은 약손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제일 알려진 K병원 진단을 받기 위하여 몇 날을 기다려서 6월 1일부터 심장을 비롯하여 여섯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미리 알려준 결과는 심장에 물이 조금 고였다는 결과였습니다. 이 병이 잘 고쳐질까? 약한 마음이 오자 병마의 사탄이 나의 머리를 치며 두통이 못견디게 괴롭혀서 밤 1시에 병원문을 두드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약하여진 내 마음은 부산에 있는 큰아들에게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밤 갑자기 C집사님이 오셔서 같이 눈물의 기

도로 회개 하였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진이었으며 다른 사람의 병 결과가 잘못 전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인생이라 했지만 백년을 넘기지 못할 주제에 죽음이란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의 일인양 하다가 어둠이 닥아올때는 갑자기 갈곳이 없어 잡니다. 것처럼 열심히 모아놓은 구슬! 열심히 딱지치기해서 따놓았던 딱지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부르시면 내가 이기었습니다. 달려가서 보고서를 들일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뿐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려던 병마를 홍해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이번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 서울교회의 형제들과 함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해요

한금희 권사

따르릉 첫 새벽 시계종소리에 눈을 뜬다.

3시 30분 주위는 조용하고, 캄캄하다. 서울교회 교인이 참 믿음과 결심으로 참여하는 홍해작전 일어나서 제일 먼저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오늘도 밝은 새날을 주시고, 교회로 나갈수 있는 건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홍해작전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는 내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본다.

대문을 나서니 아직도 해뜨기가 멀은 듯 어둡어둡 하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우리 세식구 교회로 향하는 길은 멀지만 발걸음은 마냥 가볍하다.

남편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 서도 물에 기름 걸돌듯이 하였다. 하지만 첫번째 홍해작전에 참여하고 많이 변화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두번째 홍해작전 때에는 늦게 들어온 날도 그 다음날에도 변함없이 일찍 일어나서 나보다 더 열심을 내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기대한다. 특히나 이번 홍해작전 기도중에 내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

작년 6월 제일병원에서 골다공증이 심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고 10년동안 꼬박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때는 참으로 답답하였다. 1년동안 약은 복용하고 이번 정기검사를 다시한 결과 이제는 약을 그만 끊어도 된다는 처방이 나왔다.

할렐루야!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순례자칼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태 상 집사(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때 인간들이 살아야 할 이 땅은 그 어느 위성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살기 좋게 만드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럼에도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대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피차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보충하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명과 기회를 주셨다.

어느 누군들 역사도 짧고 교회당도 갖지 못한 우리 교회가 취약한 재정으로 큰 교회도 감당키 어려운 목회자세미나와 KIMCHI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했겠는가 이는 하나님이 서울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숨겨진 비밀의 크신 계획과 각자의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한 제직들 때문이라.

아직 교회가 규모있고 짜임새 있게 질서만 따질 수 있는 체계가 못되는 처지로서 우리는 그저 죽도록 충성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사무실이 인쇄실이 되고, 문서 보관 창고도 되고, 교역자실이 간사실겸 개인 상담실도 되고, 찬양대실도 잠깐 자리만 비우면 전도회나 교회 학교에서 어느틈에 차지하는 것이 주일날의 우리 교회 풍경인 것을, 비좁은 식당과 주차할 공간 부족으로 빙빙돌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서울교회의 형편을 주님은 아신다. 그러나 어찌랴! 이것이 우리가 건너야 할 홍해안인가.

다음달에는 전교인 대이동 하계수련회가 있게 된다. 청춘의 힘찬 맥박이 뜨겁고 세차게 고통치며 돌아가듯 젊은 서울교회는 달려갈 길을 좌우를 돌아 볼 겨를 없이 숨가쁘게 달려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서울교회 교인은 반드시 자기의 은사대로 어느부서에 든 지 속해 있어 교회의 미흡한 곳을 채워야 한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고 소리나지 않는 곳에서의 아끼지 않은 사랑의 수고는 더 복될 것이다.

알림

교회건축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우리 교회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뜻을 모아 다음 요령으로 공모한다.

1. 마감일시: 1993년 7월 말
2. 규 격: 자유
3. 제출처: 교회 사무국

또한 우리 교회는 성전건축 아이디어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뜻을 모아 다음 요령으로 공모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홍해작전을 통해 받은 은혜를 크게 감사하게 하소서.
2.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예배당을 주소서.
3. 전가족 수련회를 준비하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하소서.



기도의 행진은 계속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자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반석됨에 사명의 집을 지어야 감사와 기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기도보다 앞서 갈때 시험의 풍랑은 무섭게 밀어닥쳐 자신은 물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함도 안타깝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도 없어서 못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책임있게 감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의 사명은 기도하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마다 국가와 민족,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에 달하도록 위에 이워짐을 기억하자.

가장 귀한 시간의 옥함을 깨뜨려 기도의 향유를 드려야 할 때이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자세로 한방울의 관유가 되어 정성어린 기도를 할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여 절망의 홍해를 갈라 가나안으로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민족의 해방을 위해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는 300용사처럼 기도의 청병이 되자.

'93 홍해작전은 끝났지만,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기도 시간은 영원할 뿐이다. 유월의 새벽을 기도로 밝힘은 물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복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도의 행진을 계속해야 한다. 교회의 부흥, 성전건축, 세계선교의 비전까지도 내가 쏟은 눈물의 기도 위에 이워짐을 기억하자.

중등부 성경 퀴즈대회 개최

교회학교 중등부에서는 지난 6월 13일(주일) 성경퀴즈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장학생선발을 위한 상반기 예선으로 각반 1명씩 각학년별 8명의 대표가 자음을 겨루어 3명씩의 연말결선대회 출전자를 뽑았다.

누가복음 문제가 출제범위였는데 출전자 뿐아니라, 방청석과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학생들은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퀴즈로 배우니 훨씬 학습 효과가 높다”고 이구동성이었다.

성경퀴즈대회 하반기 예선은 11월, 연말결선에서는 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홍해를 건너는 것은 꿈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현실이요, 내가 경험한 현실이요 믿음이다.
- ☐...진리에 대한 도전성은 성도의 특성이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안에서 진리로 도전하라.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홍해작전을 통해 받은 은혜를 크게 감사하게 하소서.
2.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예배당을 주소서.
3. 전가족 수련회를 준비하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오전 9:00
	II 오전 11:00
	III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12: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교회약도

